

“천년 숲에서 힐링을”...강진 백련사 동백축제 개막

27-29일 사흘간 힐링 축제 개최
사찰음식 경연·참여형 행사 풍성
다산초당 잇는 명승 오솔길 걷기
동백숲 스텝프 투어·공예 굿즈도



강진군이 천년고찰 백련사의 동백숲을 무대로 하는 힐링 축제를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 사진은 백련사 동백숲에서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천년고찰 백련사의 고즈넉한 동백숲을 무대로 봄의 정취와 건강한 사찰음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도암면 백련사 일원에서 '제3회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가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자연과 힐링, 다채로운 체험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특화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핵심 콘텐츠는 사찰의 오랜 전통과 철학을 오롯이 담아낸 사찰음식 프로그램으로, 육류를 철저히 배제하고 제철 식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을 살린 사찰김밥과 무스비 등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판매 부스가 상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제6회 백련사 사찰음식 경연대회'가 열려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전통 조리법을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를 앞다퉈 선보이며 한국 불교 음식 문화의 참원한 매력을

알린다. 동백숲의 청정한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백련사에서 해월루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걷는 동백숲 스텝프 투어와 전문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는 깊이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또한 동백꽃을 활용한 손수건, 원목 방향제,

친환경 컵받침, 양말목 키링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예 체험도 설 새 없이 이어진다.

또 곳곳에 마련된 인생샷 포토존과 사진 인화 이벤트, 보물찾기, 자연 속 버스킹 공연은 축제의 흥을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전격 지정된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이번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명소를 넘어 다산 정약용 선생과 해장선사가 종교의 벽을 허물고 깊이 교유했던 역사적인 산실로, 기암절벽을 등진 백련사 전경으로는 가우도와 강진만이 시원하게 펼쳐지며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다산과 승려들을 잇는 약 1km, 도보 20분 거리의 고즈넉한 오솔길은 매일 스승을 도우러 오르 내리며 차를 깨고 농사를 지었던 백련사 승려들의 숭고한 발자취가 고스란히 서려 있다.

이렇듯 뛰어난 경관과 깊은 역사적 가치를 두루 인정받아 일대 44만8천198㎡가 명승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수백년 된 동백숲의 장관과 건강한 사찰음식을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특별한 봄날의 힐링을 만끽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연다

내달 10일까지 치유 관광 분야 등

완도군은 23일 “군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행정 주도의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접목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했다.

주요 공모 분야는 치유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블루카본), 스마트한 섬 생활 편의 서비스, 청년 정착 등 군의 핵심 미래 전략 산업으로 구성됐다.

완도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신문고와 군 누리집, 이메일,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우수 아이디어 채택 시 최대 7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실제 군정 정책으로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의 소중한 제안이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군, 'AI 자율주행 농업로봇' 연시회 성료

노동력 50% 이상 절감 기대

함평군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농업로봇을 도입한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서 '로봇 기반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무인 자율주행 방제 로봇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 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5월부터 관내에 본격 보급되는 방제 로봇은 작물의 유무와 형상을 스스로 인식해 선택적으로 방제하는 고도화된 기능을 갖췄다.

자동 경로 주행은 물론 친환경 전동화 시스템이 적용돼 과수원 등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무인 방제가 가능하다.

군은 이번 첨단 장비 보급을 통해 약제 방제 노동 시간을 50% 이상 절감하고, 정밀 방제를 통한 농약 사용량 감소 등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장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신안군,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접수

신안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복지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기본소득 3차 신청을 원칙적으로 대면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배려해 마을 단위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신안군 특화 정책인 햇빛·바람연금과 통합해 월 최소 20만원 이상이다. 지원금은 전용 카드(1004패스)로 지급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신한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안=양훈 기자

영암 용당지구, 서남권 핵심 배후 도시 육성

2028년 데이터센터 완공 대비

만성적 주거지 부족 문제 해소

개발 후보지 3곳, 타당성 검토

영암군이 2028년 해남 데이터센터 완공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삼호읍 용당지구 일원을 서남권의 핵심 배후 주거 도시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킨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도시개발 청사진은 현재 삼호 용당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주거지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조성으로 인해 예상되는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주거 수요를 발 빠르게 선점해, 영암을 서남권 경제를 견인하는

배후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용당지구 일원에 3곳의 개발 후보지를 설정하고 각 구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개발 타당성을 다각도로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인접한 후보지 1번과 2번 구역은 하나의 거대 생활권으로 묶어 연계 개발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해당 구역은 삼호산단 배후의 기존 시가지와 맞닿아 있어 상업 기능 도입에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하며, 대불로 진입도로 개설 시 막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매입비와 지장물 보상 문제, 공사 시 발생할 시가지 소음 등은 향후 꼼꼼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 후보지 3번은 해군 제3함대 인구의 영의 주거단지 유치에 절대

적으로 유리한 넓은 면적과 저렴한 지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수월하지만, 기존 기반 시설이 전무한 데다 상습 침수 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저축 등 기술적인 제약 사항을 안고 있어 매우 신중한 추가 검토가 병행되고 있다.

군은 현재 특정 후보지 한 곳만을 선불리 확정 짓기보다는 지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시된 후보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개발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향후 체계적이고 치밀한 도시 설계를 통해 용당지구를 단순한 주거 안정화를 넘어 지역의 미래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서남권 최고의 전략적 거점 도시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초·중·고 10만원·대학 100만원

무안군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 및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23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관내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축하금 집중 신청 접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군은 2022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첫 도입한 이후, 이듬해부터 중·고교와 대학생까지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원,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이다. 축하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자선 선순환을 돕기 위해 전액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나 체류지 등록을 둔 초·중·고 입학생이며, 대학생은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신입생 본

인과 부·모,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며, 기한 이후에도 11월 말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남·아·오용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기간 남·아·오용 주민센터와 오룡현장 민원실에서도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목포경찰, 봄맞이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오는 5월까지 도로·노후 시설물 등

목포경찰서가 봄철을 맞아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2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해빙기와 개학기를 맞아 시민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훼손된 도로와 노후 시설물,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찰은 순찰과 민원 접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접수 조사하고, 목포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 협력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불편 해소에 주력하며, 개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목포경찰서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

에 게시된 '교통안전시설 정비 신고 창구' QR코드를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